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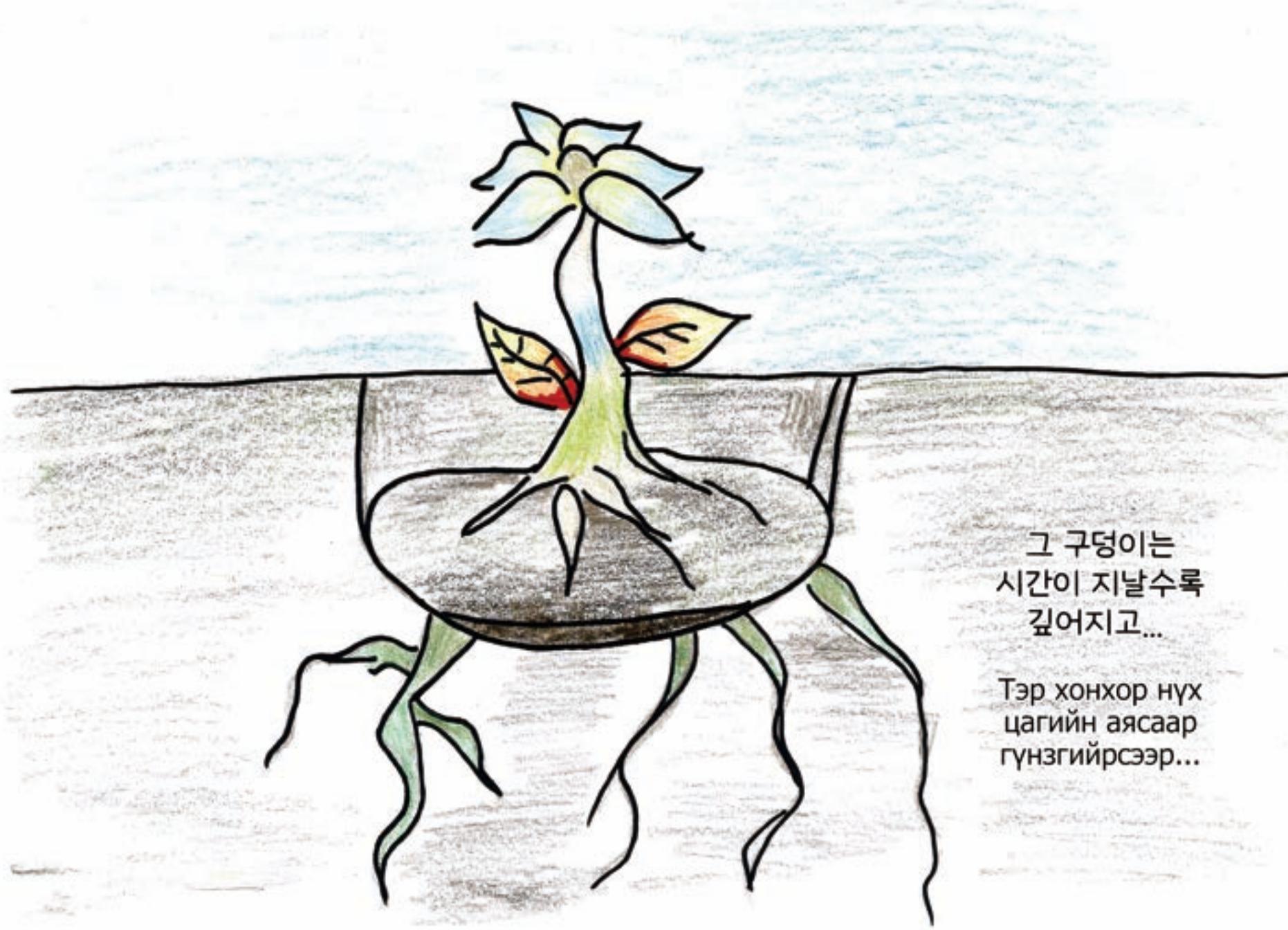
동물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Хүн' мал налайн амьдарсан сайхан
.байгалттай нэгэн тосгон байжэ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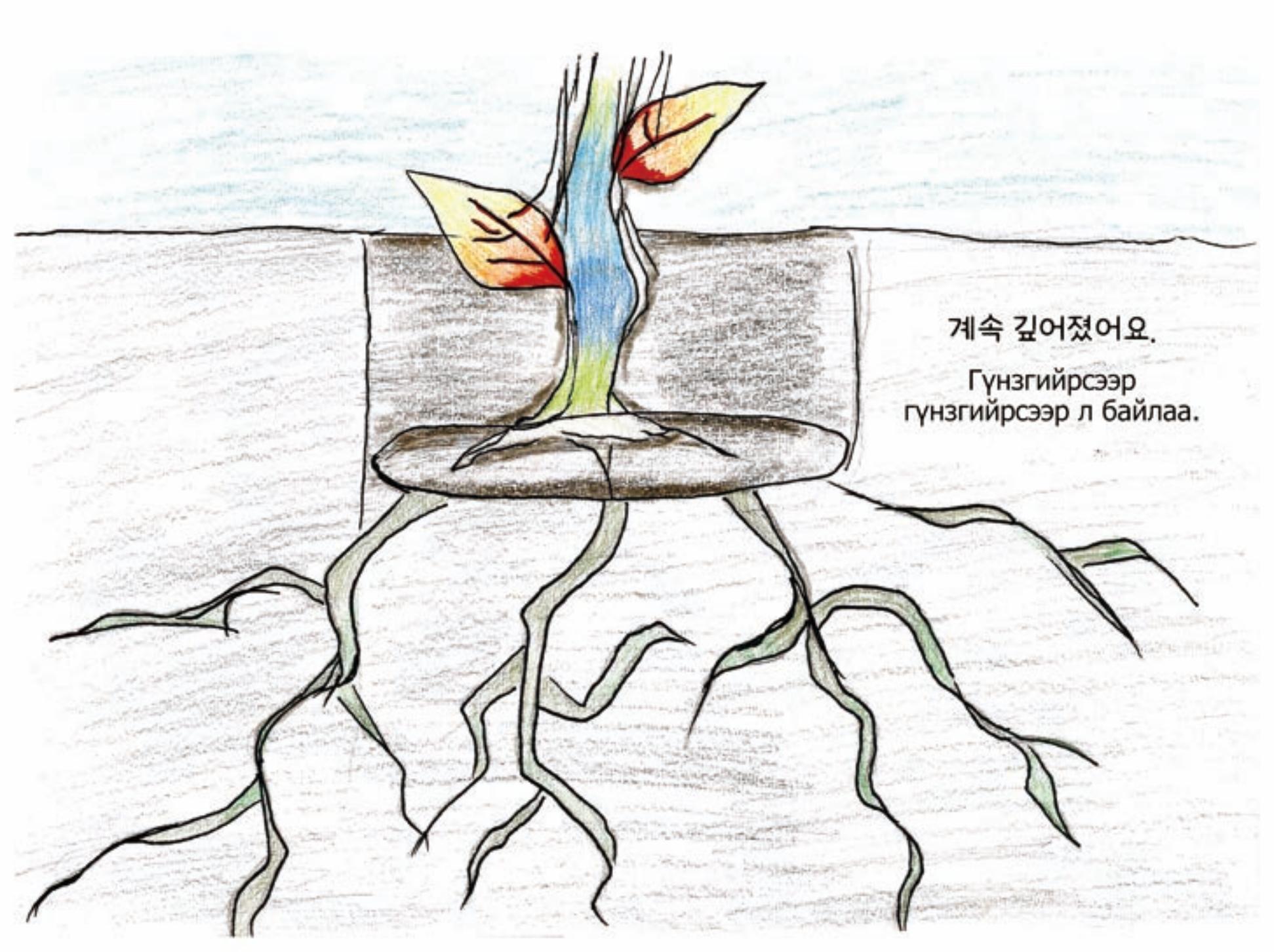
그런데 어느날, 마을에 홍수 때문에
작은 구덩이가 생겼어요.

Гэвч нэгэн өдөр тосгонд үерээс
болж хонхор нүх үүсэж эхэллээ.



그 구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Тэр хонхор нүх
цагийн аясаар
гүнзгийрсээр...



계속 깊어졌어요.

Гүнзгийрсээр
гүнзгийрсээр л байлаа.



구덩이가 끝도 없이 깊어지고 있을 무렵,
남자와 양들이 구덩이 근처를 지나갔어요.

Эцэст нь маш том ангал болон хувирав.
Нэгэн өдөр өвөө хонио хариулаад явж байв.



그 순간 양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Яг тэр мөчид нэг хонь нь
ор сураггүй алга болов.

남자는 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Өвөө хонио алга болсоныг
мэдээд үтэр түргэн хонио хайв.



그리고 구덩이 안에서 자신의 양을 발견했어요.

Алга болсон хонь нь ангал дотор байхыг олж харлаа.



마을 사람들과 남자는 커다란 구덩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Өвөө болон тосгоны иргэд том ангалыг харан машид цочирдон дахиж ийм хохирол
үзэхгүйн тулд хүчээ нэгтгэхээр болло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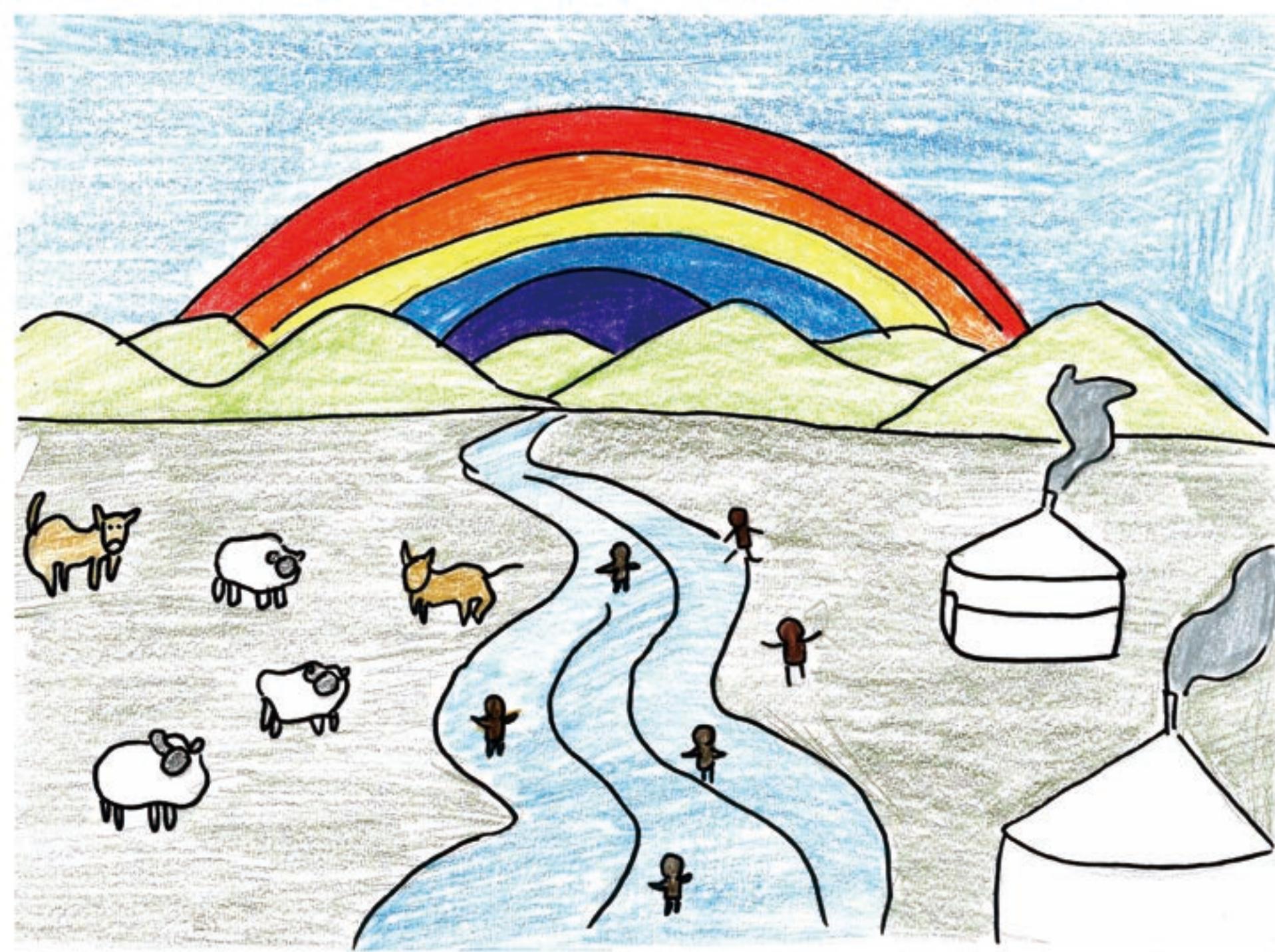


사람들은 다 같이 구덩이를 매꾸었고,
다시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평화로운 마을을 되찾았어요.

Хүмүүс бүгд хамтран ангалыг бөглөн,
хүн мал амьдрахад таатай сайхан байсан тосгоноо эргүүлэн олж авлаа.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에 살아갈
후손들에게 책을 남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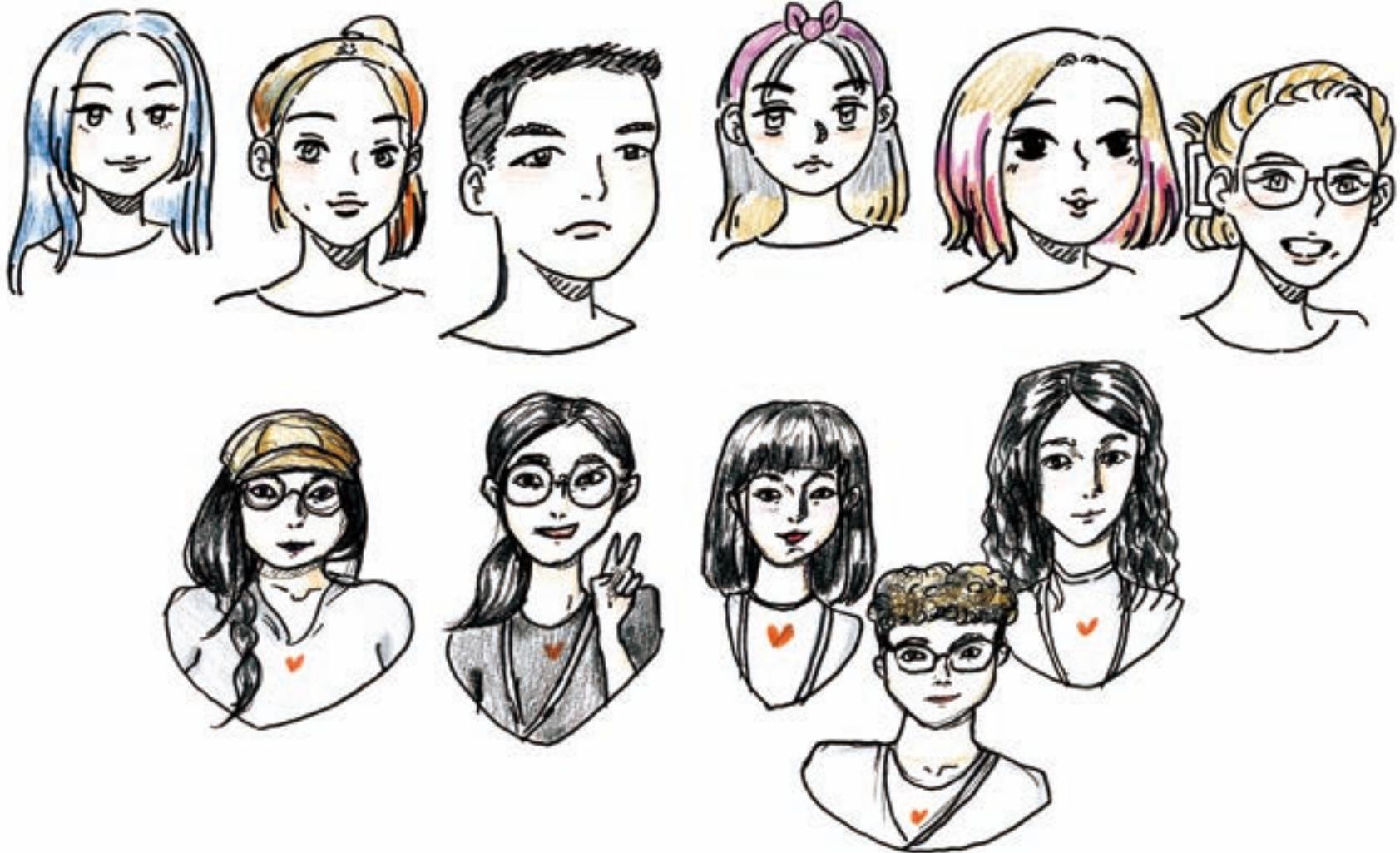
Мөн тосгондоо амьдарч буй хойч
үедээ энэхүү номыг өвлүүлэн үлдээлээ.



“후손들아, 이 책을 본다면 자연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렴”

Үр хойч минь, энэ номыг уншаад байгалийн өчүүхэн
жижигхэн өөрчлөлтийг ч гэсэн анхааралтай ажиглаж байгаарай.

Та нарын бяцхан үйлдэлүүд нэгдэн том өөрчлөлтийг
авчирна гэдгийг ямагт санаж яваарай





한국-몽골 청소년 기후행동원정대 별책부록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년 공룡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3번 기후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16명의 한국 청소년들이
몽골 현지 청소년들과 만나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별책부록의 그림책으로는 〈꽃〉, 〈양양이의 이야기〉, 〈울란바토르의 거울〉이 있습니다.

꽃 꽃 꽃

1판 1쇄 2023년 9월 19일

글·그림 김미령 김은지 김한결 신효경 이해준 마를라 알트라 어유카 어치로 윤진 젤라
펴낸 곳 공룡청소년문화정보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나길 10 전화 02-973-1318
홈페이지 gycenter.or.kr 페이스북 facebook.com/gycente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gycenter1318
기획 고다현 김윤혜 번수진 편집 고다현

copyright © 공룡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23
이 책의 저작권은 공룡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